

[창세기강해 46]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

[본문] 창 17:9-16 /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7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도,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한번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믿음의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곤두박질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도 자기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꾸신 일 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깨우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번 곤두박질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믿음이 몹시 흔들렸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낳은 지 13년, 아브라함은 체념과 좌절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13년 동안 좌절과 상처 속에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휴면상태에 들어갔던 그의 믿음을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거미줄이 끼었다고 생각했던 그 낡은 언약, 잊혀진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들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동안 신앙의 잠을 자고 있었던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

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움츠렸던 아브라함, 상처받았던 아브라함, 좌절했던 아브라함,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격려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과 축복은 네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자자손손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앞드려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약속을 다시 하지 않느냐? 그것은 24년 전에 네게 주었던 약속이 아니냐? 1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주었던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을 네게 줄 터인데 이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네 자손들도 지키게 하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말을 듣는 대로 지키면 너와 네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도 지키고 네 자녀도 지키게 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믿음의 휴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주변의 환경, 즉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하면 제한하는 것만큼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 믿는 것은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게으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고3이 되면 교회 가는 것보다 과외 공부에 가기를 은근히 원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면 야단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직장을 옮기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달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표징 ‘할례’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후대에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특별한 징표를 주십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함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의 몸에 싸인을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매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구약에는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가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육체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살에다가 이런 표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집을 한 채 사고 팔아도 계약을 합니다.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 지켜지는 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가리켜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는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돈이 많이 들고 의심하고 사기를 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처는 ‘배신’입니다. 인간은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징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에 매우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누구든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자기들만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도살 과정을 다 보고서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선택받았던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받기 전에는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별 것 없습니다. 선택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데아 우르에서 살던 보통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할례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 전에는 그도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구원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영적 상속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오만과 교만과 특권의식은 선택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야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야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되고 하나님을 독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까?

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도우십시오. 지식을 가졌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선택’이 갖는 의미입니다.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이토록 복을 주신 이유는 2천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 시골의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 선택을 잊고 이것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누리고, 독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2,13절에서 사용된 표현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내가 이 돌맹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겸손과 감격과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더 큰 의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종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주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

14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 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든 노예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또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수단에 불과합니다. 할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수단만 생각합니다.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타락이 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형식을 가진 사람은 형식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타락이 있고 독재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실수와 우를 범하고만 것입니다.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주었습니다. 신약에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일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5,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일 지켰다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되고, 할례자가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자와 같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껍데기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6장 15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징표는 할례였지만, 할례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5,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합니다. 사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래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네 부인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네 아내는 열국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지 않고 그의 유업의 동역자인 아내의 이름도 바꿔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1백 년 전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민족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란 민족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이 당신의 믿음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국모가 되고 국부가 되어도 영광스러운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 믿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